

개인사와 부상, 부진을 뒤로하고 그린재킷을 되찾은 타이거 우즈는 15일(한국시간) 마스터스 우승 직후 자신의 굴곡졌던 골프 인생을 뒤돌아본 뒤 "오늘보다 멋진 드라마는 없다"고 단언했다. 5번째 마스터스 제패를 확정짓고 두 팔을 벌려 환호하는 우즈와 열띤 응원을 보내는 4만 패트론의 함성이 이날의 역사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오거스타(미 조지아주) | AP뉴시스

'마흔넷 아빠의 메이저 우승' 보여주고 싶었다

몇 년전만 해도 걸을 수가 없었는데… 당당한 아빠 모습 보여주려고 재기 힘들었던 여정…대머리가 된 이유 내게 이보다 멋진 드라마는 없을 것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 1995년 아마추어로 처음 마스터스에 출전했고 1997년 첫 우승을 했다. 그리고 22년을 돌고 돌아서 이번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것이 오늘 4라운드의 경기에 모두 들어있었다."

마스터스의 우승자에게만 허용되는 그린재킷을 입은 타이거 우즈(44·미국)의 15일(한국시간) 우승 인터뷰는 그동안의 세월이 주는 무게만큼이나 진지했고 곱씹어볼 말이 많았다. 우즈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후반 9개 홀을 소화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시나리오가 있었다. 모든 선수들이 우승할 수 있었다. 리더보드는 우승후보들로 가득 차 있었고 플레이도 잘했다. 오늘보다 더 멋진 드라마는 없을 것이다. 내가 대머리가 된 이유다. 정말 힘들었다"면서 우승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음을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했다.

-오늘은 전 세계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훗날 사람들은 '우즈가 5번째 그린재킷을 입는 날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하고 물을 것이다.

"나도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다(웃음). 선두 프란체스코 몰리나리를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리더보드를 보니 많은 선수들에게 우승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확 눈에 들어왔다. 후반 9개 홀에서 몇 개의 좋은 샷이 나왔다. 약간 흥분했고 그것은 좋은 기분이었다."

-우승 뒤 그린에서 나올 때 당신의 어머니와 2명의 아이들이 보였다. 22년 전 첫 우승 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때를 되돌아본다면.

"1997년 첫 우승 때는 아버지가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셨고, 1라운드를 앞두고 내게 퍼팅 레슨을 해주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역사대로다.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지만 어머니는 22년이 지난 오늘 여기에도 계셨고 2명의 아이들도 왔다. 지난해 디 오픈에서 우승 기회가 있었는데 후반 9개 홀에서 몇 개의 실수를 하는 바람에 우승을 놓쳤다.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아빠의 메이저대회 우승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오늘의 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11년 전 마지막 메이저대회 우승 이후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런데 당신은 돌아왔다.

"몇 년 전만 해도 몸 상태가 엉망이어서 걸을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다. 다행히 허리가 좋아졌고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자 다시 골프채를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록 몸은 예전과 다르지만 여전히 골프를 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14번의 메이저대회 우승은 모두 최종라운드에서 선두로 나서서 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역전승이다. 이 때문에 다른 메이저대회 우승보다도 이번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는 평소와는 달랐는데.

"이 경기를 위해 많은 부분을 준비했다. 6개월 전부터 이번 주 마스터스 대회 기간 내내 신체리듬이 최고조로 오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당신이 골프계에 미친 영향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더 많은 젊은 선수들을 골프계로 끌어들였다고 생각한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선수들이 투어에 참가하고 훈련을 한다. 요즘 선수들은 더 몸이 커지고 튼튼해지고 빨라지고 운동능력도 더 좋다. 회복도 빠르다. 엄청난 거리로 공을 날린다. 이 또한 내가 골프계에 미친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 프로가 됐을 때는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골프선수는 나와 비제이 싱 뿐이었다. 요즘에는 모든 선수들이, 심지어 필 미켈슨도 몸을 단련한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마스터스 이모저모

몰리나리 "더블보기로 새 팬 만든 기분"

●…제83회 마스터스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친 프란체스코 몰리나리는 이날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다는 말로 신사다운 매너를 보였다. 몰리나리는 "난 최선을 다했다. 비록 두 차례 더블보기를 기록했지만, 이 실수들로 새로운 팬들을 만든 기분이다"고 재치 넘치는 소감을 남겼다. 이어 "지난해 타이거 우즈의 경기를 보면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우즈가 다시 잘하는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면서 경쟁자를 향한 존중도 함께 나타냈다. 몰리나리는 2006년 형 에도아르도 몰리나리의 캐디로 마스터스 1,2라운드에서 우즈와 만났던 인연이 있다.

김시우 5언더파 283타 공동 21위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을 밟은 김시우는 최종라운드에서 3타를 추가로 줄여 5언더파 283타 공동 21위로 대회를 마쳤다. 통산 세 번째 출전 만에 개인 최고 성적을 작성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첫 출전이었던 2017년 대회에서 컷 탈락했던 김시우는 지난해 공동 2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우즈, 10월 한국 방문 가능성

●…이번 대회에선 우즈의 올가을 아시아 투어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내 골프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 ESPN은 우즈의 에이전트와 인터뷰를 인용해 "우즈가 이번 가을 아시아에서 열리는 TV 매치 시리즈 출연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로선 일본이 첫 방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PGA 투어는 10월 일본과 한국, 중국에서 아시안 스윙을 소화하는 만큼 우즈의 내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우즈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찾았다.

골프 팬, 9600만원 베팅 13억대 대박

●…우즈의 우승으로 예상치 못한 돈방석에 앉은 이들이 화제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번 마스터스를 앞두고 우즈의 우승에 8만 5000달러(약 9600만 원)를 건 한 스포츠팬이 14배 배당률로 약 13억50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해당 베팅업체는 우즈의 깜짝 우승으로 골프 베팅 역사상 최대치의 손실을 감수하게 됐다. 고봉준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몰리나리에게 악몽이 된 7번·12번·15번홀

운명의 3개홀…골프의 신은 우즈편

7번홀 티샷 러프로…추격의 틈 생겨
12번홀 샷 미스 우즈에 공동선두 허용
15번홀서도 더블보기 선두권서 이탈

마스터스의 우승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골프의 신'이 있다면 제83회 마스터스에는 3개의 플롯을 미리 깔아놓은 모양이다. 그 운명의 3개 홀에서 결국 누군가는 포효하고 누군가는 역전패의 쓰라림을 가슴에 담았다.

첫 번째 플롯은 450야드 파4 7번 홀이었다. 선두 프란체스코 몰리나리는 13언더파, 타이거 우즈는 10언더파로 3타차였다. 몰리나리의 티샷이 왼쪽으로 갔다. 그린이 보지 않는 러프지역. 날카로운 퍼트와 쇼트게임 덕분에 꾸역꾸역 파 행진을 이어오던 몰리나리에게 다시 찾아온 위기였다. 152야드를 남겨둔 상황에서의 두 번째 샷이 벙커 앞에 떨어졌다. 투온 실패. 49개 홀을 소화하는 동안 보기가 하나도 없었던 몰리나리의 3온 이후 내리막 파 퍼트가 홀을 벗어났다. 이전까지 평균 퍼트 1.17개로 버텨왔지만 이번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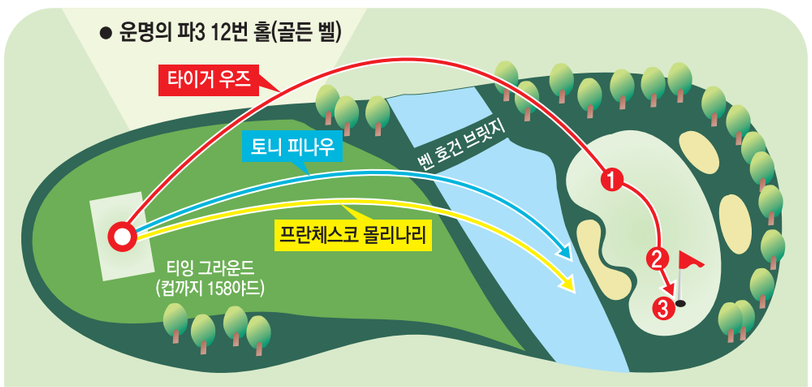
우즈는 146야드를 남겨두고 두 번째 샷이 탭인 버디 거리에 떨어졌다. 3라운드와 같은 위치에 떨어트린 티샷과 아이언샷, 그린에서의 멋진 백스핀으로 우즈는 몰리나리와 타수를 1타로 줄였다. 처음으로 틈이 생겼다.

두 번째 플롯은 158야드 파3 12번 홀이었다. 아멘 코너의 두 번째 홀. 우즈는 11언더파, 몰리나리는 13언더파였다. 7번 홀의 충격을 딛고 몰리나리는 여전히 선두였다. 평균타수 3.3타로 가장 어렵게 플레이됐던 홀에서 몰리나리는 8번 아이언을 선택했다. 컨트롤 샷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공은 그린 아래의 러프를 맞고 물로 들어갔다. 2~3라운드 버디를 했던 그의 샷 미스에 패트론은 비명을 질렀다. 몰리나리의 얼굴에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를 지켜봤던 우즈는 9번 아이언샷으로 안전하게 그린 위로 올렸다. 또 다른 경쟁자 토니 피나우의 샷도 물속으로 향했다. 몰리나리는 벌타 이후 2.5m 짜리 보기 퍼트가 또 홀 컵을 외면했다. 더블보기. 피나우도 마찬가지였다.

우즈가 1.5m 파 퍼트를 성공시키며 그렇게 높아보였던 2타 차의 벽이 사라졌다. 11언더파의 우즈가 공동선두에 오르자 경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지막 플롯은 530야드 파5 15번 홀에 있었다. 우즈와 몰리나리, 잰더 셔플레, 브룩스 켑카, 더스틴 존슨 등 5명이 12언더파, 11언더파로 혼전을 벌이던 때였다. 우즈의 티샷은 페어웨이를 지켰다. 227야드를 남겨두고 두 번째 샷이 그린에 떨어지면서 투온에 성공했다. 반면 몰리나리의 티샷은 왼쪽으로 휘었다. 러프 지역의 나무 밑. 끊어서 간 두 번째 샷마저 실수했다. 떨어진 위치가 나빴다. 그린까지 79야드 남은 지점에서 세 번째 샷이 나뭇가지를 맞고 물로 향했다. 간신히 버텨왔던 몰리나리는 결국 두 번째 더블보기를 하며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반면 우즈는 쉬운 버디를 추가하며 단독선두로 나섰다.

우즈는 파3 16번 홀에서 또 버디를 추가하며 2타차로 앞서간 끝에 우승을 확정했다. 호랑이는 한 번 급소를 물면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 맞았다. 붉은 옷을 입은 우즈가 그랬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 우즈는 파 세이브, 몰리나리와 피나우는 벌타 받고 3온 후 2퍼트로 더블보기